

강원생활도민 활성화 체류인

구 확대로 지역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체류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전략이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속초시와 KT 통신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속초시는 올해 월평균 약 73만 명의 체류 인구가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 8만 명 규모 대비 약 9배에 달하는 규모로, 속초시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관광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체류인구란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월 1회 이상 해당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내외국인을 포함한 실질활동 인구를 말한다.

속초시는 체류인구 확대를 위해 △업무와 휴식을 결합한 위케이션 사업 △하수처리장 수요에 맞춘 연계이전 프로그램 △해수욕장 야간 개장, 백사장 미디어아트‘빛의 바다 속조’등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류시간 확대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생활도민 제도’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속초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체류인구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생활도민 제도’는 강원도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해 관광·숙박·음식점 등 제휴처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평창군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총사업비 확정 추진

평창군은 미탄면 창리, 회동리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한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고보조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본격 추진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창리, 회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하류 지역인 미탄면 창리 139번지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이전) 250톤/일, 하수관로 8.067km, 배 평창군은 미탄면 창리 및 회동리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한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고보조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창리, 회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하류 지역인 미탄면 창리 139번지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이전) 250톤/일, 하수관로 8.067km, 배수설비 120가구 등을 정비하여 창리와 회동리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미처리 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 협의 결과 총사업비 150억 원(국비 85억 원, 지방비 65억 원)으로 확정되어 애초 계획한 국비 36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으로 이는 총사업비 대비 90억 원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 올해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말 완공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시책 추진실적 점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이 청렴과 연결”

도지사 주재, 청렴정책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월 4일(목) 오후 4시,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렴시책 추진실적 점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각종 청렴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강원’이라는 주제로 각 실국에서 추진한 청렴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감사위원장이 도 전반의 연간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과 글로벌본부

에서 대표로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타 실국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도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제도’ 도입, ‘청렴 피드백 시스템’ 운영,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전국 최초·최고 수준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각 실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계약 상대방 청렴 알람톡 서비스 지원으로 공사·용역 등 대민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사업자에게까지 교육을 확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소통하고 이해하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 희망 보직제 도입, 세대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부서 자체 교육 및 청렴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내부청렴도 개선에도 집중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청렴은 부패방지, 이해충돌을 넘어 적극행정 등 우리가 하는 행정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강원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고 외치는데, 정작 도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일은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월 4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로, 사전 심의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을 검토한다.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법조·세무·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과 상정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정 안건 13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환경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환경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466억 원 중 55%인 256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정비사업은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유수율을 높여, 원주(신)배수지 급수구역인 우산동, 학성동, 원안동, 일산동, 중앙동, 명륜1동 일원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노후상수도관 81.4km 교체, 누수탐사 및 복구 335개소,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45.6km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85%로 끌어올려, 연간 150만 톤의 수돗물과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를 통해 원주 구도심 지역에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이 구도심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따뜻한 복지, 제12회 횡성군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법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석원)는 4일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제12회 횡성군사회복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복지의 현재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마음이 모이면 횡성군민이 행복해집니다’를 주제로 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홍보영상 상영과 ‘시골 베짖이’의 7080 통기타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과 종사자 권익·복지 증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 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의 축하공연이 무대를 빛냈고, 점심 이후에는 영화 관람을 통해 참가자들이 쉽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김명기 횡성군수, 표한상 횡성군의회위원장, 홍기중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석원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현장에서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노고가 있기에 횡성의 복지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시, ‘제4회 청소년 행복페스티벌’

9. 6.(토) 10:00~19:30 /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일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9월 6일(토),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제4회 청소년 행복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트리 Science’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 페스티벌은 청소년 동아리가 직접 운영하는 과학 기반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청소년들의 개성과 열정이 담긴 청소년 동아리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AI 오목대회, 블랙요원과 함께하는 딱지대결, 이동식 천체투영관 운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공연, VR 드로잉쇼 등 이색 볼거리도 선보인다.

더불어 인기 아이돌 그룹 ‘하이키’와 방송인 겸 래퍼 ‘딘딘’의 초청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는 ‘2025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열린다. ‘강원대와 함께하는 이공계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담당 교수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전공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유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 분야 명사인 하리하라 김은희 작가의 특별강연도 마련되어 미래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 천수정 체육교육과장은 “올해 청소년 행복페스티벌은 2025년동해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청소년 진로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껏 즐기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2025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25. 7. 30. ~ 9. 30.
(2025 행정사무감사 기간: 11. 6. ~ 11. 19.)

• 제보내용 •

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행정의 위법 부당행위, 주요사업 등에 관한 개선, 예산 낭비, 기타 불편사항 등

• 제보방법 •

• 도민제보서를 작성하여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 택일
- QR코드 접속
-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www.council.chungnam.go.kr)
- 방문 및 우편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담당자 앞)

• 처리절차 •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①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제보사항 회부 (의사담당관 → 상임위원회)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 제보사항 처리 및 위원 지정
③ 본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처리결과 통보 (상임위원회 → 의사담당관)
④ 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의사담당관 → 제보자)
※ 채택시 격려금품 제공(1인 1개 지급)



QR로 제보하기

